

# IRS NEWS

No.34

2 0 1 4  
M A R C H  
WWW.RUS.OR.KR



블라디미르 우스펜스키 교회(촬영 : 한국외대 HK교수 최우익)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89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동 412호  
89 Wangsan-ri, Mohyeon-myeon, Cheoin-gu, Youjin-si, Gyeonggi-do, 449-791  
TEL 031-330-4852 FAX 031-330-4851

# IRS NEWS

No.34

소장 인사말 ..... 3

학술행사 ..... 4

단행본 학술지 출판 ..... 11

연구소 동정 ..... 13

IRS Newsletter는  
연 2회 발간되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소식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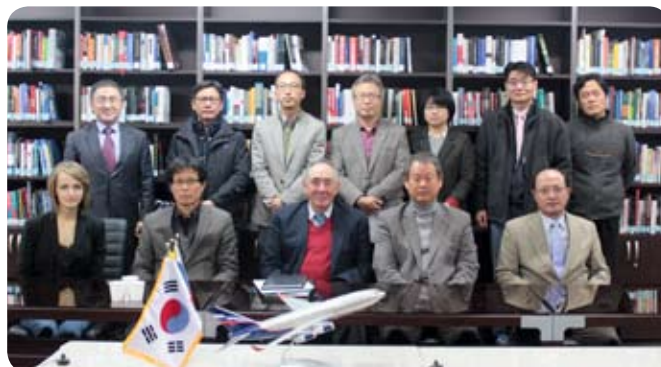
4

유라시아 정책포럼(2013.9.12)



5

국제학술회의(2013.10.18~10.19)



13

한·러 정책포럼(2013.11.21)

## 러시아연구소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며...



안녕하시지요. 새 학기와 봄을 맞아 어느 때보다 바쁘고 보람 있는 시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높은 기온 덕분에 때 이른 봄꽃이 여기저기 한창입니다. 예년 같으면 동백, 산수유, 목련, 벚꽃 등이 순서에 따라 서서히 자태를 뽐낼 터이지만, 어찌 된 일인지 올봄에는 여러 꽃들이 들쭉날쭉입니다. 이상 기온 탓인지라 내심 걱정도 되지만, 앙상한 가지에 주렁주렁 피어난 봄꽃을 바라보노라면 우리 마음은 더 없이 설레고 약동하는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여 동안 연구소의 조직 및 활동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면서 장기 발전의 튼튼한 초석을 놓은 전임 홍완석 소장의 뒤를 이어, 연구소 역사로 보면 제16대 소장이 되는 셈입니다. 1972년에 설립한 러시아연구소(당시에는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초대 소장은 저에게 처음으로 러시아어와 문학을 가르쳐주신, 이제는 고인이 되신 동완 교수님이었습니다.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만주와 시베리아 그리고 한반도 땅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은사님에 대한 각별한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 러시아연구소는 지금까지 축적해온 전통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문한국(HK) 연구과제 ‘러시아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핵심연구 역량을 심화하는 한편,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부, 대학원 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어문학 및 지역학 관련 커리큘럼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21세기형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 모델을 창출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육과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지적 자산을 여러 관련 분야에 제공하는 채널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두루 잘 이루어지기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는 우리 연구소가 국내외의 우수 연구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학문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련 학회, 인접 분야의 국내외 주요 연구소, 개인 연구자들과 긴밀한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제고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관련하여 러시아 연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현실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거나 담보상태인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연구소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우리 학문 분야 공동의 사명을 기억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러시아연구소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과 지도를 기대합니다.

러시아연구소장 김 현 택



# 초청강연회

# & 학술행사

## 유라시아 정책 포럼 개최

2013년 9월 12일(목) 러시아연구소는 밀레니엄 그랜드 호텔에서 한국외대(총장 박철)와 매일경제신문사 공동으로 유라시아 7개국 대사들을 초청하여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의 경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유라시아 정책 포럼’을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으로 대변되는 외교·안보 어젠다 제시와 함께,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전면적인 경제협력과 정치외교 협력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진 한국외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대사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기초연설을 한 박철 한국외대 총장을 비롯하여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홍완석 러시아연구소장 등 기업인, 학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제4차 HK국제학술회의 개최

2013년 10월 18일(금)~19일(토)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에서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HK)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서사회연구소와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글로벌화의 변화와 도전”(Changes and Challenges in Glocalizing Russia and Northeast Asia)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제4차 HK국제학술회의는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인 글로벌화와 지역

주의를 주요 의제로 삼아 글로벌화 현상이 러시아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여러 분과학문의 프리즘을 통해 조망해 봤다.

러시아 내 SSCI급 국제학술지 소치스(SOTSIS) 편집장이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학술회원 토셴코(Toshchenko Z.) 교수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일본, 호주, 대만 등 5개국 15명의 해외학자들이 참석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이들에 걸쳐 6개 세션 총 17편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토론을 포함해 총 34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했으며, 약 150명의 학생들이 참관하며 학술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참석한 주요 해외학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서사회연구소 소장 탄갈리체바(Tangalycheva R. K.) 교수, 미국 벤더빌트 대학교 필리모노바(Filimonova T.) 교수, 서호주 대학교 에들리(Edele M.) 교수, 대만 지난 국립대학교 이친윤(Lee Chinyun) 교수, 일본 메이지 대학교 샤프리나(Shadrina E.) 교수, 러시아 블라디미르 국립대학교 아리닌(Arinin E.) 교수, 사할린 국립대학교 발리츠키야(Balitskaya I.) 교수 등이다.



## 제1차 한러정책포럼 개최

2013년 11월 21일(목)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러시아를 비롯해 유라시아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치, 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현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한반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정책 대안과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러정책포럼’을 발족했다.

이번 제1차 한러정책포럼에서는 러시아의 대표적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루스키 미르 재단 아시아·아프리카 국장을 모시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러시아와 박근혜 정부 간 협력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양국 간 협력 현황과 향후 잠재력에 대해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톨로라야 국장은 11월 13일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11년 만에 이뤄져 한러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내의 언론에서 다뤄진 것보다 에너지, 북극해 개발 등 과거와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16개 협정이 체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반도 6자 회담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6자회담은 단순히 북핵문제만 해결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체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9월 콜로키움 개최

2013년 9월 26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해 제 133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Post-post-soviet? 현대 러시아 사회의 정치적 쟁점과 대중문화(2007-2012)”라는 주제를 발표한 한양대학교 이지연 교수는 오늘날 러시아의 문화는 포스트소비에트를 넘어 포스트-포스트소비에트를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포스트소비에트 문화가 소비에트 문화를 해체 탈피하는 문화였다면 포스트-포스트소비에트 문화는 강대국 러시아를 재현하기 위해 포스트소비에트의 혼종성을 극복하고 해결해 다시 제국 러시아의 문화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이지연 교수의 해박한 지식과 알찬 발표문 덕분에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 10월 콜로키움 개최

2013년 10월 1일(화)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해 제134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지역 문화교육 정책 속 푸쉬킨 박물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러시아 프스코프 주 푸쉬킨 박물관 코즈미나(L. V. Kozmina) 관장이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코즈미나 관장은 지역사회 문화 교육의 산실로 푸쉬킨 박물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의미와 향후 목표를 설명하면서 박물관의 역할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연구, 보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코즈미나 관장은 다양한 사진자료를 통해 푸시킨 묘, 기념일, 지역 축제, 박물관의 역사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 11월 콜로키움 개최

2013년 11월 13일(월)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해 제135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 미국 Purdue 대학교 캐넌(Robert Channon) 교수는 “러시아어: 유래, 현재적 위상, 그리고 미래”(The Russian Language: Where it came from, where it is now, and where it may be going)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캐넌 교수는 러시아어의 기원, 즉 원조 인도유럽어에서 공통슬라브어를 거쳐 동슬라브어로, 그리고 더 나가 러시아어로 분화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했고, 러시아어의 격이 6격인가 9격인가에 대한 이론과 함께 이에 대한 다양한 예를 소개했다. 또한 러시아어 문자 체계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러시아어 자음 г, к, х의 경자음/연자음 대립구조가 소비에트 시대를 전후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소개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산물인 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언어는 문화와 태생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콜로키움은 언어 프리즘을 통해 바라본 러시아인의 의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됐다.



## 12월 콜로키움 개최

2013년 12월 26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해 제136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서울대학교 서광진 박사가 “18세기 러시아문학사 연구와 여행기 문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광진 박사는 18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차지하는 여행기 문학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여행기가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과 18세기 러시아 사회상을 작품 속의 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리고 단순한 여행과 문학 장르로서 여행기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서광진 박사는 여행기 중, 특히 라디체프의 작품 ‘상트페테르부르크로부터 모스크바로 기행’은 러시아의 암울한 현실을 폭로해 전제정치에 대항하는 ‘지적 스캔들’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작품 속에 나타난 도시에 대한 묘사도 덧붙이며 기행문에 서술된 도시와 시골 공간을 비교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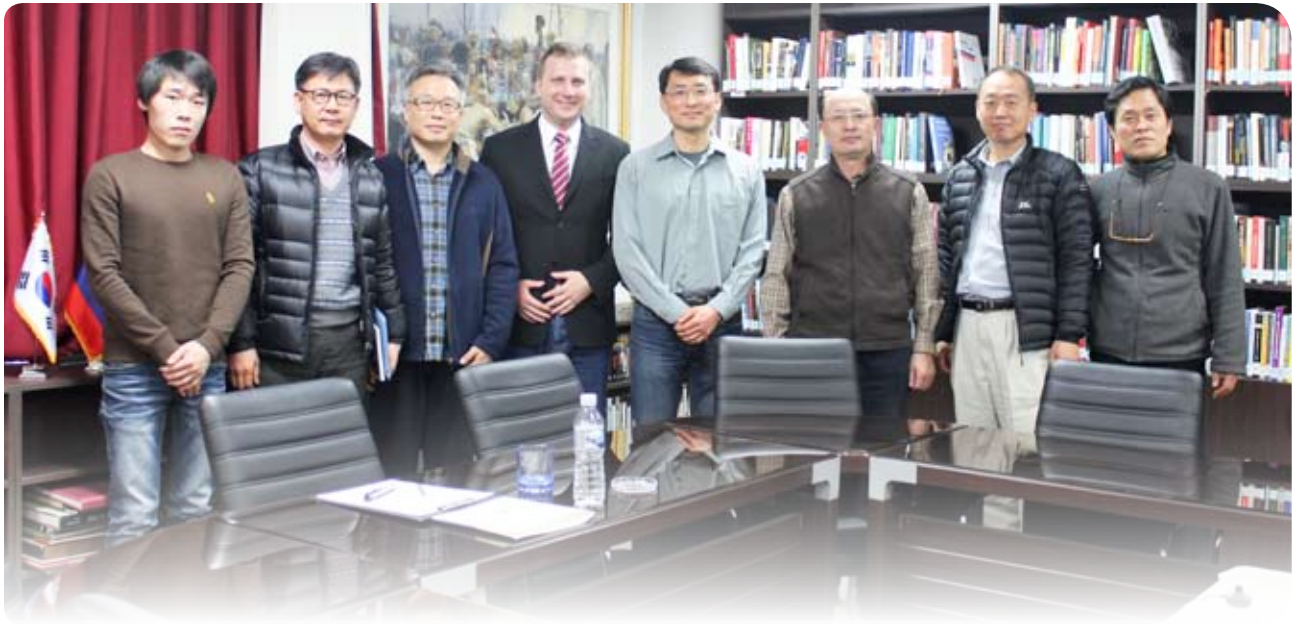
## 1월 콜로키움 개최



2014년 1월 23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해 제137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차지원 HK 연구교수가 “알렉산드르 블로크 ‘서정드라마’에 나타난 공간 상징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차지원 교수는 현상 속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상징주의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알렉산드르 블로크의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드라마는 산문적 공간과 서정적 공간을 동시에 아우르는 적절한 연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지원 교수는 도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생산한 도시는 문명의 상징으로서 가지는 개념과 더불어 비루한 현실의 공간, 즉 암울한 세속적 공간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구체적 장소’로서 상징주의의 이중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적절한 삶의 공간임을 지적했다.





## 2월 콜로키움 개최

2014년 2월 26일(수)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및 CIS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신진학자와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해 제138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폴란드 크라코프 소재 야길로니아 대학교 표트르 바이오르 교수가 “폴란드의 대러시아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폴란드내 러시아 문제 전문가인 바이오르 교수는 폴란드와 러시아가 맺어온 오랜 국가 관계를 역사적 궤적에 따라 추적해 설명하면서 폴란드와 러시아는 숙명적 애증관계를 가진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지적했다. 17세기 초반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도 한 폴란드는 이후 18세기 말엽 러시아에 의해 국토가 강제 분할돼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경험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해 소련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도 했다.

바이오르 교수는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연방이 출범하면서 폴란드와 러시아의 관계는 화해와 갈등이라는 애증관계가 지속됐으며, 오늘날에도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폴란드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양국의 관계는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대학원 전문가 초청 특강

일자	발 표 자	발표 주제
2013.09.06	이규형 전 주러/주중 대사	제1강: 러시아, 한-러 관계 제2강: 중국의 부상과 한-중 관계
2013.09.27	김석환 유라시아연구소장	제1강: 21세기 지정학의 변화와 러시아 제2강: 러시아의 북극정책과 한반도
2013.10.04	Любовь Владимировна Козмина Хранитель пушкинские горы	제1강: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России 제2강: Роль Пушкинского заповедника в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е региона
2013.11.01	장일범 음악평론가	제1강: 러시아 교향곡 제2강: 러시아 오페라와 발레
2013.11.08	최우익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교수	제1강: 현대 러시아의 인구변천과 이주민 현황 제2강: 현대 러시아의 사회계층화 현상과 중간계급
2013.11.22	정여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강: 실용적 지역연구로서의 러시아 경제연구 제2강: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
2013.12.13	김근식 중앙대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제1강: 러시아 천년의 음식 그리고 문화 제2강: 러시아인의 기질과 멘탈리티

### 중양아시아 몽골 전문가 초청 특강

일자	발 표 자	발표 주제
2013.09.13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제1강: 2013년 중양아시아 경제이슈와 한국의 진출전략 제2강: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2013.10.11	전대완 전 주우즈벡 대사	제1강: 중앙아시아의 현재 제2강: 중앙아시아의 미래
2013.12.06	이영형 배재대 시베리아센터 교수	제1강: 중앙아시아 공간의 성격연구 - 인문지리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제2강: 중앙아시아의 지정학

### 월례 콜로키움

일자	발 표 자	발표 주제
2013.09.26	이지연 한양대 아태연구소 HK연구교수	Post-post-soviet? 현대 러시아 사회의 정치적 쟁점과 대중문화(2007-2012)
2013.10.01	코즈미나 푸쉬킨 박물관장	지역 문화교육 정책 속 푸쉬킨 박물관의 역할
2013.11.13	로버트 캐넌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	러시아어: 유래, 현재적 위상, 그리고 미래
2013.12.26	서광진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강사	18세기 러시아문학사 연구와 여행기 문학
2014.01.23	차지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알렉산드르 블로크 '서정드라마'에 나타난 공간 상징들
2014.02.26	표트르 바이오르 폴란드 크라코프대학교 교수	폴란드의 대 러시아 정책

## 영문학술지 Region 제5호 발간



러시아연구소는 2014년 1월 1일 세계적인 출판사 Slavica와 함께 영문 학술지 'Region' 제5호를 발간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 시겔 밤(Lewis Siegelbaum) 교수와 러시아연구소 전임 소장인 홍완석 교수가 공동 편집장을 맡은 'Region'은 러시아를 비롯해 동유럽,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 이슈들을 분석하는 전문 학술지이다. 제5호에는 다니엘 엡스타인(Daniel J. Epstein), 다렐 슬라이더(Darrell Slider), 캐머론 로스(Cameron Ross) 등 세계적 석학들의 글 7편과 루이스 시겔밤(Lewis H. Siegelbaum) 교수의 서평 1편 등 총 8편이 게재됐다.

※ 본 저널의 목차와 본문 내용은 Project MUSE의 사이트(<http://muse.jhu.edu/journals/region>)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슬라브研究 (제29권 3호~4호)



러시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슬라브研究』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동유럽과 러시아 및 CIS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논문을 싣고 있다. 연 2회 발간되던 『슬라브研究』는 2011년부터 연 4회로 증편됐다. 작년 9월, 12월 제29권 3호, 4호가 발간됐으며, 각각 3편, 4편의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들을 싣고 있다. 『슬라브研究』에 게재된 논문들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에서 볼 수 있다.

## Russia & Russian Federation (제15호 ~제16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이 인문한국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Russia & Russian Federation』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시사성 있는 이슈들을 분석하고 러시아 지역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는 시사정보지이다. 제8호부터는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들이 집필하는 법률상식을 연재하고 있다.



## 2013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2013 RUSSIA REPORT는 국내 최고의 러시아전문가들이 2013년 러시아에서 이슈화된 주제들을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등 총 7개로 분류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수준 높은 정책보고서이다. 각각의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주제는 보수적 정책기조의 구체화와 그 이념적 정당화 모색, 2014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국가이익 보장수단으로서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미래 한·러관계 내실화를 향한 여정, 수교 65주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발전 미흡, 2013년 러시아 사회문화: 모순의 모자이크 등 총 7개 주제이다. 2013 RUSSIA REPORT는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www.rus.or.kr)

## 온라인 저널 'Russia Watch'와 'Zoom in Russia's Power Elite' 발간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2011년 9월부터 온라인 저널 'Russia Watch'와 'Zoom in Russia's Power Elite' 발간하고 있다. 'Russia Watch'는 오늘날 러시아 사회문화 현상을 독창적 시각으로 심층 분석하고, 'Zoom in Russia's Power Elite'는 러시아를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들을 엄선해 분석·발간하는 온라인 저널이다. 이곳에 실린 글은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www.rus.or.kr)

# IRS NEW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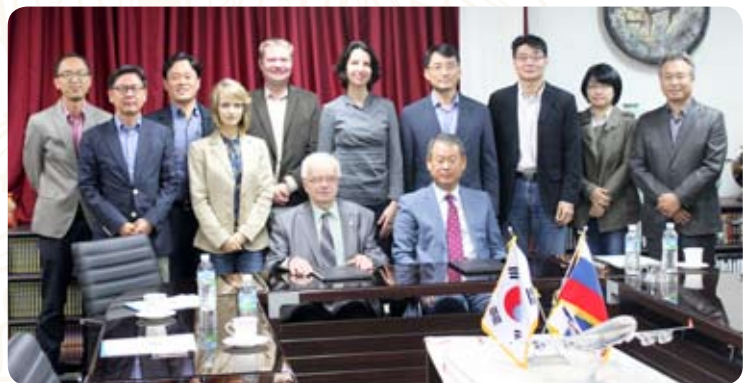
## 홍완석 소장 국제지역대학장으로 영전

2009년 11월 러시아연구소가 인문한국사업에 선정돼 초기 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홍완석 소장이 2014년 2월 1일자로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국제지역대학장으로 영전했다. 2009년 2월 1일 러시아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홍완석 소장은 양적 질적으로 러시아연구소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홍완석 학장은 인문한국(HK) 사업을 수주해 연구공간과 회의실 및 도서관을 확보하는 등 러시아연구소의 외연을 크게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질적으로 뛰어난 연구성과물을 다량 출판하는데 힘썼다. 특히 홍완석 학장은 부임 초기 온라인 시사 주간 저널 『Russia·CIS Focus』를 창간해 4,000명이 넘는 독자들에게 시사성있는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의 대중화 및 사회적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홍완석 학장 후임으로는 노어과 김현택 교수가 제16대 러시아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했다.



## 러시아 국립 인문학대학교와 MOU 체결

2013년 10월 17일(목) 러시아연구소 소장 홍완석 교수는 러시아 국립 인문학대학교(Russian State University for Humanities) 사회학부 토셴코(Zhan Toshchenko) 교수와 학술교류 및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와 러시아 국립 인문학대학교 사회학부는 첫째, 매년 학술교류를 증진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둘째, 국제학술회의, 학술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조직하고, 셋째, 출판물과 연구자료를 공유하며, 넷째, 학술행사에 두 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다섯째, 인적자원 교류와 연구자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러시아 국립 인문학대학교는 러시아 내 인문학 연구의 메카로서 러시아연구소 HK사업 아젠다를 구현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MOU 체결 자리에는 러시아 측에서 러시아 국립 인문학대학교 사회학부 교수이자 SSCI급 학술잡지 소치스(SOTSIS) 편집장인 토셴코 교수, 동 대학부 부학장 아니시모프(Roman I. Anishimov) 교수, 소치스 학술지 편집위원 쿨레쇼바(Anna V. Kuleshova) 박사와 한국 측에서 홍완석 소장을 비롯해 러시아연구소 HK전임인력들이 참석했다.

## 러시아 아시아 태평양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러시아연구소 방문

2014년 2월 19일(수) 러시아 국립 하바로프스크 대학교 교수이자 아시아·태평양 국제관계문제 연구소(Asia Pacific International Relations Study Center) 티모셴코(Timoshenko V. N) 소장과 이바노프(Ivanov A. Y) 교수는 러시아연구소를 방문해 인적 학술교류에 관한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했다. 티모셴코 소장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 사이에 인적 물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부터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이 두 지역의 관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티모셴코 소장은 향후 양 연구소가 상호 방문 및 연구자 교류를 통해 교류의 폭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 KOTRA 시장조사실 정영화 팀장 러시아연구소 방문

2013년 11월 18일(월) KOTRA 시장조사실 신흥지역팀 정영화 팀장과 최민희 과장은 러시아연구소를 방문해 KOTRA와 러시아연구소의 학술 교류 및 인적 테크워크 구축에 관해 홍완석 소장 및 HK인력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영화 팀장은 KOTRA가 신흥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과 러시아연구소가 추진하는 HK사업에 양 기관이 공유할 사항들이 많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간 교류를 확장하자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 피오토르 바이오르 교수(Пiotр Байор) 러시아연구소 연수

2014년 1월 17일부터 2주간 폴란드 크라코프 소재 야길로니아 대학교 바이오르 교수는 러시아연구소를 방문해 홍완석 소장을 비롯한 HK 연구인력들과 공동의 관심사를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토의했다. 연구자 교류 및 학문 교류 차원에서 방문한 바이오르 교수는 폴란드 내 러시아 전문가로서 주로 폴란드의 대 러시아 대외정책에 관해 다양한 논문과 저술을 발표했다.



## 러시아연구소 HK 전담 행정직원 채용

2013년 11월 1일 김혜화 선생님이 러시아연구소 HK사업 전담 행정직원으로 부임했다. 김혜화 선생님은 HK사업의 행정 업무와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

## HK국내학술회의 개최 안내

- ◆ 주 제: 현대 러시아 일상공간의 긴장과 갈등(기안)
- ◆ 일 시: 2014년 6월 3일(화) 13:30 ~ 18:00
- ◆ 장 소: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411호
- ◆ 주 최: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자세한 사항은 추후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 이메일 등을 통해 공고

## Russia · CIS Focus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Russia · CIS Focus' 칼럼투고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주 발행하는 'Russia · CIS Focus' 칼럼은 러시아 및 CIS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영역뿐 아니라  
어학·문학·예술 등 모든 영역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주간 인터넷 칼럼입니다.  
러시아와 CIS 지역에 관련된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편집부의 검토를 거쳐 실리며, 소정의 고료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이 지역 정보를 갈구하는 동학제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 형 식: 한글 기본화면, 11포인트, 2페이지 내외
- ◆ 내 용: 러시아·CIS 지역에 관련된 글

·홈페이지 참조 : [www.rus.or.kr](http://www.rus.or.kr)  
·보내주실 E-mail : [hkirs@hufs.ac.kr](mailto:hkirs@hufs.ac.kr)  
·문의전화 : 031-330-4852

항상 소중한 옥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기존의 Russia·CIS Focus 칼럼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후원자 모집



## 1. 후원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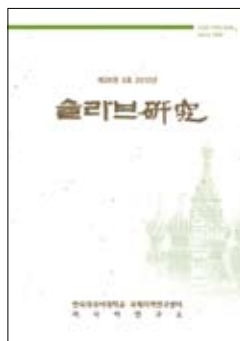
1972년에 창립된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2012년 40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고(最古)의 러시아학 연구소입니다. 굵직한 학문적 족적을 남겨온 러시아연구소는 이제 국내 전문연구소의 위상을 뛰어넘어 세계 수준의 연구 메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러시아연구소의 도전을 격려해주시고,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실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 2. 후원자 자격

러시아연구소 연구 및 출판 등 제반 학술 활동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 및 기관은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 3. 후원금 규모 및 약정 기간

- \* 개인회원: 1년 10만 원
- \* 기관회원: 1년 100만 원
- \* 특별회원(개인 및 기관): 1년 상당액의 후원금
- \* 약정 기간: 1, 3, 5, 10년 중 택일







#### 4. 후원자 혜택

- \* 러시아연구소의 일정 출판물 지면에 후원자임을 표시해드립니다.
- \* 러시아연구소의 각종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을 보내드립니다.  
(러시아연방총서, 학술연구총서, 슬라브연구, Russia & Russian Federation 등)
- \* 특별회원은 협의에 따라 주요 출판물의 공동발행인(로고 포함)으로 표시해드립니다.
- \* 후원금은 세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무료로 배포되던 러시아연구소의 각종 on-line 성과물은 종전과 같이 보내드리며,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회의 및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5. 후원금의 수납 및 처리 과정

후원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처 발전협력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납되고 관리되며, 후원금의 사용명세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시됩니다.

상담 문의: 031-330-4144(최우익 교수) / 031-330-4852(김선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소장 김현택

####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후원자 현황(2014년 3월 기준)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강흥주	한국외대	100만 원
기연수	한국외대	100만 원
김근식	중앙대	50만 원
김수환	한국외대	30만 원
김준석	한국외대	30만 원
김현택	한국외대	100만 원
방교영	한국외대	100만 원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50만 원
송준서	한국외대	100만 원

성명	소속	약정금액
이종진	한국외대	100만 원
이재문	경북대	30만 원
장 실	한국외대	100만 원
최우익	한국외대	100만 원
포드고르나야 류보피	한국외대	20만 원
한정숙	서울대	100만 원
홍완석	한국외대	300만 원
황성우	한국외대	100만 원
합계		1,510만원

# 슬라브研究

## 논문투고안내



『슬라브研究』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발간되고 있고, 동유럽과 러시아 및 CIS지역의 어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분야에 관한 깊이있고 참신한 연구논문을 실고 있습니다.

- 『슬라브研究』 발간일 : **2014년 6월 30일** (제30권 제2호)
- 논문 투고 마감일 : **2014년 4월 20일**

『슬라브研究』에 기고를 원하시는 동학제현께서는 논문 제출기한에 맞춰 본 연구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논문 투고요령과 심사 규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시 필수기재사항

- 1) 논문 영어 제목 및 초록
- 2) 논문키워드(국문5개, 영문5개)
- 3) 관심분야 3가지(국문)

- 홈페이지: [www.rus.or.kr](http://www.rus.or.kr)
- e-mail: [irspress@hanmail.net](mailto:irspress@hanmail.net)
- Tel: 031-330-4895

항상 왕성한 학문적 성취를 기원드리며 소중한 옥고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研究』 편집위원회 드림.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